

지역 소식 통

부안군의회, 청년정책
협의체와 간담회 개최

부안군의회(박병래 의장)는 지난 25일 부안청년UP센터에서 관내 청년정책협의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안군의회와 청년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박병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부안군 업무 관계자,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주요 의제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문제, △창업 지원, △문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다뤄졌으며 각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병래 의장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부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산업단지 악취 민원
해결 사업주들과 간담회

정읍시는 26일 송금현 부시장 주재로 제1, 2, 3 산업단지 내 악취를 유발하는 사료제조업, 석유류 정제업, 폐기물 재활용업 등 15개 사업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악취 문제 해결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성동과 북면 등 주민 생활권과 가까운 산업단지 내 악취 유발 사업장 증가로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폐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각 사업장의 악취 저감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 투자 및 노하우를 공유하며 다인한 의견을 나눴다.

송금현 부시장은 간담회에서 “제조 공정상 악취 발생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사업주의 의식 변화와 과감한 시설 투자가 없으면 악취 민원과 업체 간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서림공원 안전한 휴식공간 탈바꿈

부안군,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사업 완공...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선정 쾌거

부안군 서림공원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온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사업”이 완공되어 한층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서림공원은 자연산에 조성된 넓은 면적의 자연공원이다보니 공원 규모와 자연환경 특성상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부안군은 적극행정을 펼쳐 부안경찰서와 협업하여 서림공원 일원에 대하여 범죄예방분석을 실시하고 올해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존 조명시설의 부재로 어둡고 범죄예방에 취약했던 주요 산책로와 시설에 경관조명과 CCTV를 설치하였고



범죄예방과 공원 경관의 가능성을 충족하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로고젝터와 바닥노면표시를 설치하였다.

또한 사건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상황실과 연계되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부안경찰서와 협업하여 범죄예방설계(CPTED)를 반영하고 적극행정으로 지자체예산을 활용한 사전 설계를 통해 연내 사업을 완료한 결과,

11월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하는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에 부안군의 ‘서림공원 도민중심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사업’이 선정되어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성과는 서림공원을 사랑하는 부안군민들의 관심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며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은 지난 25일 부안군청에서 부안경찰서와 아동보호구역 지정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아동 범죄 예방 지역사회 협력

부안군-부안경찰서, 아동보호구역 지정 협약 체결

부안군은 지난 25일 부안군청에서 부안경찰서와 아동보호구역 지정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부안군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및 신청 안내하고 부안경찰서와 협의 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이후 지정 구역에 범죄예방시설물(안내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하여 지속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이다.

부안경찰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부안군과 합동 현장조사 실시, 지정 구역의 범죄 위험도 분석 및 예방 방안 진단하여 지정구역의 적합성을 판

단한다. 구역 지정 이후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 부안경찰서와 협력하여 아동 범죄 예방 및 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관내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집, 도시공원, 초등학교 등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부터 500m 이내 구역으로 아동범죄 위험이 있어 순찰 강화 및 범죄 예방 시설물이 필요한 일정 구역을 의미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보훈회관 신축 기공식 열고 공사 시작

내년 10월 준공 목표

고창군이 26일 오후 고창읍 고촌리 233-5번지 일원에서 보훈회관 신축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만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지역 내 8개 보훈단체장 및 보훈 가족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보훈회관은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994.18㎡ 규모로 지어지며,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훈회관이 완공되면 고창군의 보훈단체들이 협조하고 열악한 기존 환경에서 벗어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훈 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을 주제로 한 전시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해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보훈가족의 오랜 염원이 담긴 보훈회관 신축이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되었다”며, “안전하고 튼튼한 시공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보훈가족의 복지와 보훈단체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한빛원전, 운곡 저수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협약

고창군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최현규)와 지난 25일 ‘운곡 저수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아산면 운곡저수지 아래쪽에 18홀의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진다. 한빛원전 측은 파크골프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설계, 공사 등을 진행한다.

고창군은 공사착수 전 전원개발부지 사용승인과 산업부 협의, 완공후 파크골프장운영 등을 맡는다.

고창군과 한수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성사됐다.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에 위치한 운곡저수지는 한빛원전의 발전 전용 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84년 준공된



특수목적용 저수지다. 저수지가 생겨나면서 인근 마을이 수몰되는 아픔을 겪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빛원전의 협조로 그간 많은 화해를 치러온 아산면 지역에 주민편의 시설이 마련돼 다행

이다”며 “앞으로 운곡파크골프장이 운곡유수호스텔, 구름골 자연휴양림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청년 취업지원 강화’

공무원 · 공기업 맞춤형 교육... 행정학 과목 추가 공기업 직강

정읍시가 청년들의 공무원 · 공기업 시험 합격률 높이기 위해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의 커리큘럼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청년들의 취업 능력 강화를 목표로 운영 중인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의 교육 과정을 2025년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강반 공무원 동영상반, 공기업(NCS) 동영상반 등 세 가지 과정을 운영 중인 준비반은 이번 개편으로 공무원 직강반에 행정학 과목을 신설하고 공기업 대비반에 상·하반기 전문 강사의 직강반을 새롭게 추가한다.

특히 공기업(NCS) 대비 과정은 3개월 단위의 집중 강의로 문제해결, 수리, 의사소통 등 3과목을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학습할 수 있어 실전에 강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무원 대

비반은 기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과목 외에도 행정학을 포함해 보다 전문화된 시험 대비 교육을 제공한다.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은 2023년 개강 이후 공무원과 금융권에서 총 1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이번 커리큘럼 강화는 기존 수강생들의 요청과 수요를 반영해 실전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내년 과정에 참여할 수강생 모집은 12월 중 시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또한, 수능을 마친 예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 홍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정읍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과 그 배우자·자녀로, 18세부터 45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